

융의 개성화이론으로 읽는 영화<케빈에 대하여> The Movie <We Need to Talk About Kevin> by Jung of Individuation

최영미, 조이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Young-Mi Choi(chosuan01@daum.net), I-Un Jo(choiw5@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융의 개성화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가족과 다수의 인물을 살해한 소년과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다. 모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모성의 숭고함을 드러내거나 때로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조차도 서슴지 않는 모성을 등장시키는 장르 영화로 표현한다. 또는 모성성과 충돌하는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여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성이데올로기는 근대적 산물로서 산업화 사회에서 성역할을 고정하는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부성애와 달리 모성애는 여성성과 동일시 되며 여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양육 책임을 넘어 안전한 사회적 구성원을 길러내도록 책임이 강조되었다. 영화<케빈에 대하여>는 양육과정에서 애착형성이 부족한 모자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서사로 전개되지만 이는 ‘모성애가 부족해 자식을 잘못 기른 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의 재연이 아니다. 어머니 에바는 모성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갈등을 모자 관계에 투사했고 아들 케빈 역시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에 영향을 끼친 투사를 경험한다. 본고는 융의 개성화이론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투사하는 자아를 직면하고 외부적 역할이나 이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아 자기실현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투사 | 융의 개성화 | 모성애 | 이데올로기 | 자기실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movie <We Need to Talk About Kevin> by individualization theory of JUNG.

It is about the mother and the boy who killed the family and a lot of people based on the original novel of the same name. Movies based on maternal love express the maternal sublime devoted to their children, or act as a genre film that introduces maternity even against social myth or ethics. It expresses the desire of a woman to clash with maternity and raises questions about maternal ideology. The maternal ideology was a modern product had fixed sex role in industrialized societies. As a result, maternal love is identified with femininity unlike paternal love. Women are emphasized to be responsible for raising safe social members beyond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movie <We Need to Talk About Kevin> develop story about crime that occurred in mother-son relationship which lacks attachment formation in fostering process. This is not a recurrence of the maternal ideology of mother who miscarried child because she lacked motherhood. Mother Eva projected a conflict that is between maternal ideology and her desire on mother-son relationship. Son Kevin also experiences a projection that influenced his persona through his mother. In this paper, I analyze through JUNG's individualization theory that The characters face their projected ego and realize self-fulfillment by searching of their own life goal out of external role or ideal.

■ keyword : | Projection | JUNG's Personalization | Maternal Ideology | Self-Realization |

I. 서론

모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다루어 숭고한 이미지를 심곤 한다. 범죄 누아르와 스릴러 영화의 장르에서는 자식을 위해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에 위배될 정도의 행위조차 극단적 모성애로 용인되기도 한다. 비록 혈연관계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모성애는 헌신과 보살핌을 바탕으로 유사 가족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돌봄의 윤리를 바탕으로 여성은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으로 희생되며 모성애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을 이분법적 존재로 구별한다. 비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고, 기혼 여성이라도 모성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비난받거나 그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기도 하며 혼자만의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이는 기혼 남성에게 부성애가 강조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모성애를 실현하는 것은 지고지순한 가치이므로 여성의 욕망은 부차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이기적인 인물로 평가받거나 주변의 인물 혹은 상황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근대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서 여전히 고착된 모성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양육 책임과 아울러 안전한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구성원을 길러내도록 강조되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 (We Need To Talk About Kevin)는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2011년 개봉했다. 케빈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과 교사를 다수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영화는 케빈의 엄마 에바의 시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전개된다. 에바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이웃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하며 생활한다. 수감생활 2년이 지난 후 케빈과 에바는 반목하는 감정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네이버의 영화 리뷰(1,044건)를 보면 케빈을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로 간주하여 절대적 악마성의 인물로 보는 의견과 에바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 잔인한 인물로 성장한 서사라고 보는 유형들이 다수였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겪은 관객들의 리뷰 중 다수가 에바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양육자인 어머니의 책임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성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독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의 일부로 판단된다. 영화가 회상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불성실한 양육의 결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인물의 심리 변화라는 점이다. 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두 인물에게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살아가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화콘텐츠는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비판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재연하여 관객에게 편견을 심어주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고는 가해자가 벌인 광기어린 살인의 원인을 그가 유년기에 접한 모성의 결핍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케빈과 에바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투사의 관점에서 보고 옹의 개성화 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모성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서사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모성의 방식이 자녀 양육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자녀는 증오심과 폭력성을 유발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폭력의 대상은 가족과 주변인들이며 자신의 존재감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1]. 연구 대상 작품들 속 흑인 여성의 모성에는 가부장제 외에도 백인을 이상화하는 인종주의적 가치가 더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흑인 하녀의 위치이지만 백인 여주인을 대신하여 그녀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내용에 대한 연구도 있다. 백인 여주인은 자신의 열등의식과 왜곡된 사회적 자부심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 분노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거부하고 자녀에게 비정상적 강박과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자녀들 스스로와 타인을 파괴하게 만든

대[2]. 이러한 모성애의 부재로 인한 불행은 극복하도록 하는 것은 혹은 하녀가 수행한 돌봄에서 이루어낸 인간 관계의 상호 이해와 정서적 교감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모성애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의 구성원은 이탈하거나 외부로 향해 폭력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는 모성을 여성성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돌봄의 윤리로 확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 대한 선행연구 중 모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라캉적인 독해를 통한 분석이 있다. 이 연구는 이 영화가 특정한 주제의식이 아닌 현상의 제시를 통해 여성이 무조건 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상징계에 속하는 법과 질서를 통해 ‘모성’이 발현되었다고 본다. 에바는 케빈과의 불화 속에서 상징계에 적응하기 위한 대체제로 딸을 출산하지만 케빈을 더욱배제한 상황을 초래할 뿐이다. 여기에 케빈의 욕망은 번번히 좌절되는 오이디푸스 단계이며, 너그러운 아버지는 오히려 권위가 부재하여 비극의 원인으로 상정한다. 연구자는 에바가 케빈의 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구성된 모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분석하였다[3]. 다른 연구자는 에바가 모성이 결여되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속죄를 통해 케빈과 화해하는 내용으로 분석했다. 케빈은 살인 사건을 저질러 ‘살인자의 어머니’라는 굴레를 에바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에바가 가졌던 삶의 욕망을 차단하고자 하는 공격성향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필자는 에바가 모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4]. 케빈의 사건 동기를 과거의 외상과 관련된 무의식적 재연으로 간주하며, 양육 환경의 실패로 인한 초자아가 결핍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케빈의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점이 에바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미 아버지도 초자아가 결여된 인물로 파악했다[5]. 영화가 에바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 가해자의 서사를 회복하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 가해자를 괴물로 취급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사고이며 이러한 시선들이 사회적 부조리를 강화하거나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어낼 수 있다는 관점이다[6]. 평론가 신형철은 영화 속 서사가 모성애의 갈등이 아닌 에바와 케빈의 실패한 사랑의 서사로 보았다. 이들은 상대방의 욕구를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외부로 촉발된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다고 보았다[7].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모성의 역할이 양육의 관점을 넘어 돌봄의 윤리를 통해 개인들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화의 결말을 모성의 회귀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필자는 에바의 모성이 결여된 행동 원인을 여성성과 동일시되는 모성이데올로기로 보았다. 이는 에바와 케빈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살인 사건 이후 이들의 변화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3.1 모성이데올로기의 탄생과 미디어 속 양상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Elisabeth Beck-Gernsheim)은 ‘모성애의 발명’이란 저서를 통해 모성에 대한 관념이 18세기부터 시작된 근대 산업 사회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산업화는 가족이 노동·경제 공동체 역할을 상실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새로운 노동분업을 발생시켰다. 남성이 외부의 직업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에 맞는 본성이 새로 규정되는데 남성은 활동적이고 추진력을 갖춘 이성적 소유자로 여성은 온순하고 겸손하며 감성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이는 국가적 통제를 거쳐 교육과 법률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사회를 작동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이 시기 계몽철학이 등장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아동의 위상도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교육은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중시되고,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여성의 고유함으로 간주되었다.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며 생물학적, 문화적 신화가 유포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직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성 개인의 욕구와 어머니의 역할은 충돌하게 된다. 여기에 경구피임약이 출시되면서 여성은 출산을 소명이 아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8].

필자는 빅인즈를 통해 2009년부터 2017년의 신문 기사에서 모성애와 부성에 관한 기사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모성애를 다룬 기사가 부성애를 다룬 기사보다 월등히 많았고, 여성성과 모성애를 동일시하는 반면 남성성과 부성애를 동일시하는 내용은 전무했다. 신문 기사 특성상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서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내용들도 모성애와 연관되어 많이 등장한다. 동물과 과학 연구 기사에서는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조차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기사들이 압도적이며 모성애는 자연스럽고 태생적인 본능으로 간주된다. 과거 18세기 이후 동물의 암컷들은 모성의 좋은 표본으로 간주되었다. 순수한 본성이 드러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새끼를 돌보기 위해 스스로 잔혹함을 포기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성온 편견에 의해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여성에게 이성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슬픔, 분노, 불안에 대해서 짓을 상하게 하고 아이들의 성질을 훼손시키는 타락의 징표라고 여겨 금기시하기도 했다. 신문기사의 결과에서도 양육을 통해 얻게 되는 우울증이나 불안 역시 부성애 보다는 모성애와 연관되며 현신과 인내를 통해 자녀의 진학과 취업, 또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데 모성애가 주효한 기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모성애를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로 다루고,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에 대한 비난 역시 부성애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모성이테올로기는 여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규범의 성격으로 출발하였고, 성역할의 변화가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도 대중매체는 여전히 본능과 과학이론에 접목하여 모성이테올로기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융(Jung)의 개성화 과정

“개성화(Individuation)란 용어는 융(Jung)이 1921년에 발간한 ”심리학적 유형론“에서 처음 등장한다. 개성화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이 균형 잡힌 인격의 무게 중심인 자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개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자기원형’과

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페르소나’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동규범이자 사회적 역할이다. 이는 자신을 외부에 대해 보여주는 인격으로 작용하며 타인의 인상에 부합하거나 이미 규정된 자기 모습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체가 집단의 존재 목적과 이상에 예속되면 그는 자기 소외에 빠진다. 그는 다만 외부적 역할이나 집단의 목적과 이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화와 자기실현은 우선 집단과 자신의 삶의 목표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이는 자각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집단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성화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집단 안에서 더 나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 페르소나는 집단정신의 한 면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적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화되는 것을 자아 팽창이라고 하며 심화될 경우 자아를 상실할 수도 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사회적 역할, 의무, 도덕규범 등을 맹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인생의 전반기 주된 역할은 페르소나를 발전시키고 적절히 분화시키는 것이다. ‘그림자’는 열등하고 억압된 무의식적 인격의 측면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집단적 무의식에도 적용된다. 그림자를 억압할 때 위기 상황에서 돌출되거나 다른 대상에 투사되어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자아가 그림자를 인식하고 적절히 분화시키면 부정적 기능은 감소하고 자신의 여러 측면을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의식의 심상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다는 융의 주장이다. 이는 성별 간 심리적, 생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의 차이로 발생하며 아니마의 최초 투사는 어머니이며 아니무스는 아버지에게 의해 행해진다. 페르소나가 자아와 외부 세계를 중재하듯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아와 내면 세계를 중재한다. 모든 인간 존재는 심리적으로 두 개의 성(性)을 지니며 자기 의식에 부족한 것을 찾아 정화시켜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 ‘자기실현’은 개성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원형을 만나는 것이다. 융의 전체성은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같은 무의식의 모든 속성을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기실현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개성화는 인격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인격의 완성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성화 과정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고, 각 단계 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시련을 겪고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하며 괴로워한다. 융은 인간이 이같은 정신적 발달을 위해서 자신의 정신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개성화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무의식의 모든 내용들을 의식에 통합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9]. 융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응하면서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며 갈등 시점 초기에 느낄 수 있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여 전일성을 추구하게 된다. 좁은 의미의 개성화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사이의 대화로 보며,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집단과의 관계에서 투사를 제거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9].

IV. 영화 분석

표 1. 인물의 개성화 과정

구 분	에바	케빈
페르소나	이상적인 엄마/ 자유로운 여행가	사랑받는 아들/ 독립적인 남성
그림자	모성이데올로기와 욕망의 갈등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의 열등감
아니마/아 니무스	지적, 예술적, 적극적, 분별력	감성적, 생명력, 사랑의 환상
자기실현	살인사건 이후 모성의 역할이 아닌 자기와 케빈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살인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에바와 화해하는 태도

4.1 에바의 개성화 과정

페르소나란 개인이 외부와 관계할 때 보이는 인격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스스로 정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려는 주도적 태도를 표출하거나 이미 외부에서 규정된 인상에 적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소지

만 자신과 지나치게 동일시할 경우 자신의 본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근대에 경제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인간은 혈통과 신분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통해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받는다. 개인은 전통적인 사회체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만 노동 시장의 요구에 종속되고 도태되지 않는 경쟁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성별을 떠나 인간의 생존과 관계되며 인생의 미래 설계는 직업과 연관된다. 영화에서 에바의 결혼 전 직계 가족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에바의 직업은 여행가이며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성공적이다. 그녀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이며 가족 또한 그녀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에바의 인생행로에서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미혼인 현재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축제에서 프랭클린을 만나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가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한 것은 엄마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 직후 그녀가 유모차를 끌고 나가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공사장의 소음을 듣고자 하는 장면은 육아에 고통 받는 엄마의 전형을 그린다. 그녀는 케빈을 키우는 내내 이상적인 양육자의 자세를 취하고자 애쓰지만, 현실적 괴리감은 클 뿐이다. 자신의 방에 세계지도를 걸어놓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여행가의 삶을 실행에 옮길 현실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에바는 더 이상 자신의 이상과 맞는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경력을 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출산 이후 겪게 되는 경력 단절은 육아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

에바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일도 없고 남편과 자신의 욕구와 상충하는 현실에 대한 대화도 단절되어 있다. 남편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 에바와 소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에바는 배변훈련이 되지 않는 케빈의 행동에 화가 나 그의 팔을 부러뜨린 상황을 맞이한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케빈에게 사과한다. 비슷한 육아 경험을 나눌 친구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에바는 모성과 충돌하는 자신의 그림자를 각성하지 못한 상

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에서 열등한 부분을 인식하고 통합시킬 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자를 인식하면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교정할 수 있고,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억압된 심리적 경향들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이 아닌 타인 혹은 외부 세계와 맺는 상황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9]. 에바의 그림자는 이상적인 양육자다. 에바는 의식적으로 모성에 부여된 자애롭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자신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의 열등한 특성으로 왜곡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에바에게 엄마로서의 삶은 역할로서의 삶과 관계로서의 삶이 조화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인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일방적 유착이 아니다. 에바는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아이에게만 말한다. 좋은 엄마의 역할은 남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남편과는 의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치 케빈으로 인해 욕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에바는 케빈의 살인사건 이후에도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다. 화가 난 이웃들은 에바의 집을 붉은 페인트로 낙서를 하거나 그녀가 구매한 물건을 부수고, 빵을 때리기도 한다. 에바는 이전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그림자와 결별한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피상적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케빈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에바는 가해자의 가족으로 감수하게 된 고통을 이전처럼 회피하려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여행을 꿈꾸지 않는다. 여행가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생계를 위해 간신히 얻은 예전의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에 도 만족해한다. 에바는 부서진 계란 요리를 먹으며 계란껍질을 입 속에서 꺼내 늘어놓는다. 케빈을 면회 갔을 때 케빈이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어 나열하던 모습과 닮아 있다. 에바는 케빈의 행동을 모방하며 그를 이해

해 보고자 한다. 이는 에바가 모성의 당위성에 함몰되지 않고 케빈의 욕구를 이해하려는 각성의 변모다. 그리고 케빈을 비롯한 타인이 존재하는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4.2 케빈의 개성화 과정

케빈의 아버지 프랭클린은 에바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결혼을 실행하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 여기는 사람이다. 케빈은 아버지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다. 프랭클린은 케빈으로 인해 여동생이 실명을 했음에도 에바를 질책할 뿐이다. 케빈은 아버지에게 문제없는 아들로 인식되고 에바 외에 인물과는 갈등하지 않는다. 살인 사건 이후 변호사에게 자신이 우울증 약의 부작용을 겪은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거라 말하는 용의주도함을 가지기도 했다. 그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에바에게는 예외다. 에바는 언제든 애정을 철회하고 자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다. 에바는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모험을 떠나려는 사람이므로 자신도 엄마처럼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페르소나를 지녔다. 그가 에바를 제외한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일은 에바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고, 다른 가족은 방해자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에바가 애정을 쏟는 여동생과 아버지는 자신과 무관하며 그들이 소멸될 때 자신의 세계는 온전해진다고 믿었다.

결국 자신의 그림자와 통합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순간 그는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다. 살인도구였던 활은 케빈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케빈은 엄마에게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활을 잘 쏘는 의적 로빈후드'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녔다. 케빈은 에바가 욕망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나면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에바의 방에 걸린 세계지도에 낙서를 하거나 여동생을 살명시키고 살해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케빈은 에바를 향한 인정 욕구를 지녔지만 그 욕구는 케빈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그림자다. 에바가 케빈의 컴퓨터를 켰을 때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괴성을 지르는 뼈

에로를 보게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대방인 에바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케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동안 에바와의 관계는 더욱 단절된다. 케빈은 에바에게 의도적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케빈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에바에게 자신이 남성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일반적인 모자 관계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에바는 더욱 당황할 뿐이며 이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케빈이 수감된 지 2년 만에 케빈은 에바와 처음으로 포옹하게 된다. 케빈은 살인 사건의 이유에 대해 묻는 에바에게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라고 답한다. 이것은 케빈과 에바는 자신들이 대화할 수 없었던 자아를 인식하는 시점이 된다. 케빈이 살해한 인물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포함한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였다. 그들과의 관계 혹은 갈등이 묘사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살해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케빈이 성장하며 관계 맺어야 할 중요한 대상들이었지만 케빈은 자기의 그림자에 함몰되어 그들을 알지 못했다. 케빈은 거대한 사건의 가해자가 된 뒤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타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행동으로는 자신의 삶이 온전해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미성년자였던 케빈이 성인이 되어 성인 감옥으로 옮겨가는 시점이기도 하다. 케빈이 더 이상 에바의 어린 아들이라는 페르소나에 머물 수 없다는 의미다.

개성화는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열등 기능에 대해 자신을 통합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과 세상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정신발달의 목표가 된다[12]. 케빈은 이제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요소들의 균형점을 찾아 상충하는 외부와 타인들을 헤치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각성을 이루게 된다.

V. 결론

영화<케빈에 대하여>는 케빈과 어머니 에바의 자기

실현에 관한 영화다. 모성이 부족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기간 동안 애착 형성이 미흡한 청소년이 결국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켰다는 서사로 보는 것은 모성이테올로기의 전형성이다. 동물적 본성으로까지 비유되는 이러한 관념은 여성성과 동일시되며 근대화 시점에 발생한 산업화가 가져온 성역할의 변화마저 고착시킨다. 생물학적 출산을 거치는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모성이테올로기는 양육 대상인 아동의 성취를 여성이 이루어야 할 삶의 성취와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우를 범한다. 이러한 사회집단으로부터 강요된 페르소나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사회적 불행이다. 에바는 원치 않는 출산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부합되지 않는 삶에 비판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삶의 부정적 이유를 아들에게 투사하고, 케빈 역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갈망하다 다수를 살해하는 참극을 벌인다. 하지만 에바와 케빈은 사건 이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외부로 향했던 원망과 핑계를 거두어들인다. 이들 인물은 진정한 개성화를 통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된다. 개성화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적 역할인 페르소나를 조율하는 일이다. 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개성화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개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므로 집단 안에서 더 나은 자기 만족을 실현하는 일이다. 케빈과 에바는 가장 불행한 일을 겪고 인생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사와 캐릭터를 통해 시대를 반영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10][11]. “영화는 관객을 길들인다”는 데이비드 보드웰의 말처럼 과거 영화는 정치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도구로 쓰이는 부정적 사례와 더불어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들로 인한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필자는 영화<케빈에 대하여>가 모성이테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서사가 아니라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개인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폐해를 비판하고 진정한 개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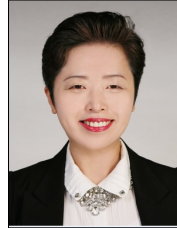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김종갑, 모성의 부재와 대상관계이론: 토니모리스의 <가장 푸른 눈>, <술라>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0-146, 2013.
- [2] 김선애, 윌리엄 포크너의 *The Sound and the Fury*: 모성 부재의 비극과 구원의 비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9-102, 2009.
- [3] 김유진,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서 나타난 모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라캉적 독해,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7-64, 2015.
- [4] 이명보, “영화 <케빈에 대하여>의 서레이드 연구,” 씨네포럼, 제28호, pp.75-106, 2017.
- [5] 박문현, 정신병질적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52, 2015.
- [6] 진준혁, “비극을 다루는 영화의 공정한 시선에 대하여-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을 다룬 영화들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6, pp.537-550, 2017.
- [7]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 pp.40-52, 2014.
- [8] 엘리자베트 벅 게른스하임, 이재원 옮김, *모성의 발명*, 알마, pp.43-128, 2014.
- [9] 칼 구스타브 융,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pp.243-348, 2009.
- [10] 박철,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영화홍행요소 분석-한국, 중국, 일본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51-61, 2013.
- [11] 유진희, “라캉을 통해 본 김수현 작가의 주체와 욕망 <사랑과 야망>, <내 남자의 여자>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127-134, 2012.

저자 소개

최영미(Young-Mi Choi)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문학사)
 - 2012년 2월 : 경기대 문화예술대학원 독서지도학(독서지도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독서심리학, 문화콘텐츠, 영화

조이운(I-Un Jo)

정회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1년 7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부동산 경제학박사)
 - 2016년 2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부동산금융, 전세가격, 주거부담, 거시경제